

사회과의 지역화 현황과 과제

김대운* · 엄미경**

목 차

- I. 서론
- II. 사회과의 지역화와 교육내용체계
- III.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역화 현황
- IV. 결론

I. 서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제주도에서도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 왔다.¹⁾ 학교현장에서 유용한 특정 교과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재(자료) 개발이 함께 진행되는가 하면²⁾, 제6·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시킴으로서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기회가 많아졌고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³⁾

* 남녕고등학교 교사

**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

- 1) 이는 서귀포시교육청의 교육목표에도 잘 나타나있는데,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자유도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체험활동 위주의 향토·문화교육 및 환경·관광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제주문화의 창조적 계승, 청정 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교육,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유아·특수교육의 질 향상 등이 설정되어 있다. (<http://www.jjsgpe.go.kr>)
- 2)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은 1996년 「향토사교육자료」를 출간하였고, 제주도 각 교육청은 「사회과 탐구자료」를, 그리고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은 「아름다운·제주도」를 편찬하는 등 학교현장에 필요한 학습지도자료가 보급되었다.
- 3)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2000)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더욱이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은 제주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역사적으로 척박성과 주변성 등은 제주의 고유성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제주의 정체성은 지역의 언어, 민속, 역사, 사회문화현상 등에 많이 나타나있다.⁴⁾ 이는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사회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지역교육⁵⁾의 구성이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초·중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제주 지역사회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주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중등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3-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학년)별로 구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사회과 내용체계,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제주지역 관련 교과내용, 제주지역 학교현장에서의 사회과 수업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사회과 교육내용의 경우 지리영역인 인간과 공간, 역사 영역인 인간과 시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인 인간과 사회 영역으로 나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제주지역과 관련된 교육내용⁶⁾은 단원별 소요시간(수업 시수),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록된 사진, 지도의 수 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방법과 함께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방법, 현장 교사와 학생들과의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학교현장의 교사, 학생들과의 면접은 초·중·고별로 나누어 제주도에서 규모가 동일학년에 9학급 이상인 학교를 선정한 후 지역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는 일반교 3개교와 실업교 1개교를 선정하였다. 면접대상은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 각 6명, 중학교 사회교사, 중학생 각 4명, 고등학교 사회 및 국사교사 6명, 고등학생 4명을 선정하였다. 면접은 2004년 1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3회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임하였다.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실시가 필요하다.

- 4) 신행철은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을 제주사회의 물적 환경으로 지리적인 면에서의 도서성과 주변성, 화산회토의 농토 등을, 역사적인 환경으로는 피억압적 역사성을 들고 있다.(신행철 외 1997:7)
- 5) '지역교육'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특정의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교육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지역교육'은 현재의 지방분권화된 교육체제하의 지역사회 교육(education of local community 또는 local community education), 특정 '지역사회 안의 교육'(education in the community), 특정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육(communitiy-based education),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community)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즉, 지역교육이란 조화롭고 열린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이상적인 개인적, 공동체적 삶의 구축과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이다.(김병욱, 1997)
- 6) 주제별 학습목표를 분석하여 제주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같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II. 사회과의 지역화와 교육내용체계

1. 사회과 지역화의 추진배경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역사·지리·생활상 등에 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자부심과 함께 전개되며, 교육은 피교육자가 서 있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의 중요한 성격 중의 하나가 지역성으로 학교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인 교육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과는 전혀 동떨어진 교육을 해왔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학교현장의 자발성·창의성을 무시한 채 모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동일시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중앙에만 의존하는 획일적인 사고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교육부는 1987년에 '제5차 교육과정'의 개편을 고시한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지역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지역화 학습을 위한 각종 자료가 개발·보급되어 왔으며, 사회과에서는 지역화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편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도입된 지방자치의 영향과 함께 현장에서의 계속적인 요구 등에 힘입어 교육과정 결정권의 지역화를 시도해오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함께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이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 학교교육체제를 교육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닌 제7차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학생의 능력(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등 세 가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둘째, 재량활동의 신설·확대이다. 자기 주도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한 범 교과 활동 재량시간을 학교, 교사, 학생이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학습량 최적화와 수준 조정이다.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별 최저 필수요소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도 조정하였다. 아울러, 학교 급별 이수과목 수도 축소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이다. 학생이 성취해야 할 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학력을 평가한다. 학교별로 편성하는 교육과정의 평가체제도 확립한다.

다섯째, 창의성, 정보능력의 배양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교육과 개방적, 창

의적 교육활동을 강화하였다.(교육부고시, 1997 15호)

이러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를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지식의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1997: 28-29) 사회과의 총괄목표는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⁷⁾이다.(교육부고시, 1997-15호)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과교육에서 학습자들이 가지는 문제는 공간적 범위의 제한성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발행제도는 지역의 특수성,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 학부모들의 기대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이 규정하고있는 내용을 수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볼 수 있고, 직접 경험이 가능하거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물과 현상을 소재로 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있는 사회과 교육내용을 발견,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결정권이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 수준으로 위임됨으로써 그 동안 국가 교육과정의 실행과 집행 또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밖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던 지역수준의 교육주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의 역할과 더불어 일선 학교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각 교과 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교육체계 내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전달자로서 머물렀던 교사의 역할이 교과서에 의한 교육과정의 전달자와 같은 단순 매개체가 아니라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

2. 사회과의 교육내용체계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사회에 도래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 실현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도록 하며 전통문화의 이해를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과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강조되어야 한다.(교육부, 2000: 2-3) 사회과 교육과정은에서 새로운 시민적 자질⁸⁾육성하기 위해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사회현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과 함께 다

7) 교육법은 교육목표와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목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인과 사회, 국가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 민족문화의 전통에 대한 이해, 세계속의 한국인의 역할,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등을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차경수, 2002: 65)

8) 정보의 수집·처리기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이다.(교육부, 2000: 3)

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과는 사회과학의 제 영역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탐구방법 체계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한 교과이며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이다. 즉, 사회과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사회의 실상과 현상들을 파악하게 하여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교수·학습 전략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판단 및 의사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학습을 지향한다. 그리고 다른 교과와는 달리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지역성과 시사성을 고려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진영은, 조인진, 2001: 220)

사회과의 학습내용은 학습자의 성장 발달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로 그 주안점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고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3학년에서는 고장 중심으로, 4학년은 시·도 단위 중심으로, 4학년 2학기부터는 국가 단위로 확대하여 세계 단위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들을 이해하도록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기초를 다지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사회과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교 사회과의 내용체계

영역 \ 학년	3	4	5	6
인간과 공간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과의 관계	-우리 시·도의 모습 -시·도의 지도 그리기	-우리 국토의 모습 -환경의 이용과 보전 -도시와 촌락지역의 생활	-우리겨레의 삶의 터전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 -지구촌
인간과 시간	-고장생활의 변천 -고장의 문화적 전통	-옛 도읍지와 나라들 -박물관과 문화재	-문화 전통의 계승 -경제의 성장	-민족국가의 성장 -민족문화의 성장 -근대 시민사회의 발달 -현대의 한국
인간과 사회	-시장과 물자의 이동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 -고장사람들의 노력	-지역의 자원과 생산 -물자유동과 상호 의존 -지방자치와 주민생활 -우리 시·도의 여러 문제와 해결 -우리 시·도의 미래 -다양해지는 가정생활 -취미와 여가생활 -가정의 슬림살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보화시대의 산업활동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구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3m: 14), 박인현(2001: 116-117)에서 재구성.

다음으로 중학교에서는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의하여 발견, 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국사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인물사, 생활사를 토대로 사건 또는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활약상을 주제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이해하는데 힘쓰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중학교 사회과의 내용체계

영역 \ 학년	7학년(1학년)	8학년(2학년)	9학년(3학년)
인간과 공간	지역과 사회 탐구 중부 지방의 생활 남부 지방의 생활 북부 지방의 생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유럽의 생활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인간 사회와 역사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지구촌 사회와 한국
인간과 시간	지역과 사회 탐구 인간 사회와 역사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유럽 세계의 형성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국사>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 신라와 발해 고려의 성립과 발전	지구촌 사회와 한국 <국사>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동 개화와 자주 운동 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 민족의 독립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
인간과 사회	지역과 사회 탐구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 사회와 주민 시민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생활과 범 규범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민주 시민과 경제생활 시장 경제의 이해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지구촌 사회와 한국

출처: 황재기 외(2003: 18-20)에서 재인용.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하며, 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핵심 요소는 인간과 공간 영역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이해, 인간생활의 다양성 이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이해, 인간과 시간 영역에서는 문화의 특수성 파악,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 이해, 인류의 발달과정과 문화적 특색 파악, 그리고 인간과 사회영역에서는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사회현상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현대사회의 성격과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인간과 공간영역, 인간과 사회영역은 '사회'교과서에서 인간과 시간영역은 '국사'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과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고등학교 사회과의 내용체계

영역 \ 학년	10학년(1학년)
인간과 공간	국토와 지리정보 자연환경과 지리정보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인간과 시간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국사> 한국사의 바른 이해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통치구조와 정치 활동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사회구조와 사회생활 민족문화의 발달
인간과 사회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정치생활과 국가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사회과의 내용체계를 분석하면,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적 개념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지식의 발견과 적용 및 문제 해결 능력에, 고등학교에서는 종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00: 18)

Ⅲ.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역화 현황

1.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지역화

사회과의 내용체계는 사회공동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기르고 자발성과 주체성을 가진 인간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잘 구성해야 한다.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지며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 방향과 구체적인 수업지침을 제공한다. 교과서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공인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의 목표와 집필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누가 마련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는 한 사회의 정치구조, 권력구조와 직결되는 것으로 사회적 결단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강철만 외, 2000: 179) 매사추세츠 주의 교육 개발 센터에서 출간된 「교과서 활용의 극대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많은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의 주요 도구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학습 활동을 하는 시간의 75%, 그리고 교실 밖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의 90% 가량은 교과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교과서가 교수·학습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이승철, 2002: 4)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과서가 과연 현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며 학습자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줄곧 의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진단 하에서 여기서는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제주지역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제주지역 관련내용을 학년별로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제주지역 관련 학년별 교육내용

학 년	교육과정 수업시수	제주지역 관련 교육내용 (수)		
		수업 시수	사 진	지 도
초등3학년	96시간	93	104	5
초등4학년	96시간	58	179	14
초등5학년	96시간			
초등6학년	96시간			
7학년(중1)	96시간	11	11	2
8학년(중2)	96시간		1	
9학년(중3)	128시간			
10학년(고1)	160시간	2		
계	704	162	295	21

제7차 교육과정이 지역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에 한해서 내용의 지역화만 되었을 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이후부터는 지역화에 대한 내용은 단절되고 있다. 이것은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는 지역 단위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4학년 2학기부터는 국가 단위의 교과서(사회과 탐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지역인 제주는 국가단위의 교육내용과 보편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역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1학년 사회 교과서 ‘I. 지역과 사회탐구’ 단원에서 교사가 방법의 지역화를 이루지 못하면, 현행 교육과정으로 지역교육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도 사회과목과 국사과목에서 제주지역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 제주인의 정체성 형

성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교사의 재량으로 학습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⁹⁾

사회과의 가능한 총 수업시수 864시간 중에 164시간 지역교육이 할 수 있지만 164시간 중 151시간이 초등학교 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 때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 관련 교육내용을 영역별로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제주지역 관련 영역별 교육내용

영역	교육과정수업 시수	제주지역 관련 교육내용		
		수업 시수	사 진	지 도
인간과 공간	264시간	44	98	18
인간과 시간	362시간	55	38	
인간과 사회	238시간	60	159	3
계	626	99	136	18

인간과 공간영역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장 → 지역 → 국가 → 세계로 확대되는 동심원적 지역 확대 방법을 유지하고 있고 4학년 2학기 이후부터는 제주지역 관련내용이 거의 없다. 중학교 이후의 과정에서는 모든 학년에 걸쳐 국가 및 세계 전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과 사회탐구' 단원에서 교사가 재구성하여 수업을 할 때 지역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간과 시간 영역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 지역 관련 수업시수는 총 55시간이다. 하지만 제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변화의 측면에서 구성되었고 역사의식을 갖는 지역사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교사가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¹⁰⁾에 있다면 제주지역의 역사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지나 가게 된다. 인간과 사회영역의 측면에서 볼 때,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교사가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제주지역 관련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없다.

문제점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기(13-18세)인 중·고등학교 시기이다.(김항원, 1990: 25)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것도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9)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은 교육내용의 선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현재 제주도의 역사에 대한 자료가 정립되지 않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해도 일반화된 내용들이 아니어서 교사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된 수업내용이 된다.

10) 교과서를 보는 관점은 ① 교과서가 최소한의 필요한 지식을 수록하였다고 보는 관점으로 교사는 교과서 안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교과서를 학습지도의 보조물로 보는 관점으로 수업의 주체가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임을 자처하는 입장이다. ③ 교과서를 여러 가지 학습자료의 총체로 보는 관점 등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사회 교사용지도서, 2002)

가시화되었다고 하는 사회과에서도 지역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학교현장에서의 지역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제시한 학습방법은 교재의 재구성 과 주제중심의 접근, 통합적·교수방법의 강조, 고급 사고력과 탐구기능의 신장,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정수의 반영, 개별화학습과 협동학습의 조화, 다양한 수업기법과 자료의 활용 등이다.(제주도교육청, 2002: 337-339) 이는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강의에 의존하는 수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교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는 각 교실의 수업을 지원하는 학교장이 있지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최종 결정자는 교사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교사의 권한은 막중한 것이다.

초등학교 사회과를 예로 들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그야말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의 한 자료일 뿐이다. 거기에 담겨진 것은 모두 지역화, 학교화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 저작자는 지역화하지 않아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애쓰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더 많은 자료를 주고자 탄생시킨 것이 「사회과 탐구」라는 또 하나의 교과서이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자료는 무한하며, 이 때 그러한 자료 선정의 기준, 근거가 되는 것이 교육과정과 지침이다.

한편,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싶을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것을 실천, 개선해가면서 지역과 학교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지역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의 지역화, 학교화를 지향하고, 현장에서 이처럼 실제적인 방안들이 모이고 쌓이면 우리 교육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친절한 교육으로 바로 설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이다. 사회과 교과용 도서들은 학교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결코 유일한 자료라고도 할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같은 자료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교사의 의도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볼 때, 오히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03n: 23)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의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학교 주변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관찰한 학교 주변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여봅시다.”, “학교 주변을 직접 살펴보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등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주의 학습이론¹¹⁾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자율권과 선택권을 주고 그들의 요구와

관심에 가치를 둔 수업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자유로워 새로운 지역교과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¹¹⁾ 수업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과의 경우 지역박물관 탐방, 유적지 탐방, 문화재 조사 등 체험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교육이 일부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학교현장의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¹³⁾

연구자 : 4학년 1학기가 제주도에 대한 이해교육이 사회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 사 : 다음 수업시간에 수업할 주제에 대하여 조사할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 조사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교 사 : 물론 현장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건상 안되면 '에듀넷 지역사회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인터넷, 비디오자료, 신문이나 잡지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학생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교 사 :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연구자 : 일반사회(국가 수준의 교과서)교과서와 지역 교과서 「아름다운 제주」 중 어느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 사 : 지역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자 :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교 사 : 과제가 많아도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해오는 편입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지역화도

- 11) 구성주의란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환경,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는 학습이론이다.(이승중 외, 2004: 22)
- 12) 제주도교육청은 2000년 2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역화 교재인 「우리들은 1학년」을 발간했다. 제주도교육감이 인정한 「우리들은 1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재로 1학년 지역화 교재로서는 처음 출간되었다. 「우리들은 1학년」은 기본생활규범 영역, 학교생활환경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기초학습 기능 영역 등 네 가지 영역에 35체제로 구성됐다. 이 책은 지역교과서라는 특성을 살려 삽화 및 사진자료에 제주 자연환경의 반영을 극대화했고 제주 어린이들이 활용할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 현 실태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바른 자세' '깨끗이 바르게' 등 입학 초기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이 교재는 무엇보다 아동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하도록 창의적·탐구적 활동과 놀이 중심의 활동 등을 담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등에서 받은 교육경험과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 간 간격을 좁혀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학습경험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상황 중심, 활동 중심, 놀이 중심의 열린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주체 중심의 통합 운영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기초학습 기능관련 내용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대폭 축소해 '학습용구 바르게 사용하기'와 '바른 자세로 말하기와 듣기'에 한정했다.<제주일보> 2000년 3월 1일자)
- 13) 제주 시내 D초등학교, I초등학교, S초등학교 4학년 교사와의 면접결과이다.(면접일자는 2004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3, 4학년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I초등학교 4학년 K학생과 면접한 내용도 교사와의 면접 결과와 같았다. K양도 교사가 과제를 유인물로 안내하자 과제물을 노트에 올려서 붙이고 그 밑에 과제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었다.(면접일자는 2004년 4월 17일자)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3학년 학생을 면접한 결과도 지역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시내 D초등학교 5, 6학년인 경우도 사회수업은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를 주어 모둠별로 발표하는 수업과 교사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요약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접일자는 2004년 4월 20일자)

다음으로 중학교의 경우이다. 중학교 교실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신성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평가가 있고 평가는 학생들의 관심인 고교 입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주 시내 중학교인 경우, 동일 학년에 13학급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동일 학년에 과목당 교사 2~3명이 가르치게 된다. 동일한 평가기준과 평가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습목표만 가지고 나름대로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할 때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현장에서는 학교 내신성적이 입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사가 교과서를 학습 지도의 보조물로 보고 가르칠 수는 없다.¹⁴⁾ 학교현장에서는 교과중심의 교육과정¹⁵⁾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이는 제주시내 J중학교 사회교사와의 면접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면접일자는 2004년 4월 23일자)

연구자 : 사회 수업시간에 학습교재는 무엇을 기초로 하여 가르치십니까?
사회교사 :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자 : 학습목표에 따라 선생님이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사회교사 : 단원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교과내용을 잘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 :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수업시간을 늘리지는 않는지요?
사회교사 : 교과서를 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자 : 교과서를 다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교사 : 고교입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은 고교진학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내 중학교인 경우, 특별고(과학고, 외국어고)나 시내 인문고 입학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목표입니다. 입학시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을 모두 배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 J중학교 1학년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이 다른 동료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충실히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접일자는 2004년 3월 30일자)

15) 사회과에서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은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지식을 강조하여 주입시키는 주지 중심의 교육을 기반으로 사회과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과정이다.(조광준, 1998: 84)

이상의 변접결과에 의하면, 학습은 고교입시의 한 수단이 되고 입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험에 대비해야하며 시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교과서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강의식, 설명식 수업이 주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도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학생의 창의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J중학교 1학년 2004학년도 1학기 3, 4월 사회수업의 실태를 1학년 학생 K군과 면접(면접일자는 2004년 4월 24일자)을 하였으나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p>연구자 : 1학년 사회수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p> <p>학 생 : 선생님이 유인물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p> <p>연구자 : 유인물 속에 제주도에 관한 내용과 자료가 있습니까?</p> <p>학 생 :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p> <p>연구자 :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습니까?</p> <p>학 생 : 교과와 내용을 잘 요약한 것과 문제가 있습니다.</p>
--

수업 전개도 교과서의 내용을 잘 정리한 유인물과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맞추고 있다. J중학교 1학년 200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평가문제를 분석해도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시험 범위가 '지역과 사회 탐구' 단원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주된 학습목표다. 객관식 23문제, 단답형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주지역과 관련된 평가문제는 없었으며 지역조사의 순서, 지도 이해, 지역사회의 변화 배경 이해, 문화재의 종류, 지역사회 기관의 종류와 기능 이해 등 주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결국, 중학교에서는 고교 입시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제주지역과 관련된 교육내용이라도 교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충실히 이해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은 강의식 수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지역화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탐구력, 의사결정력, 창조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등 고급사고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구호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이다. 교사는 교과서의 단원을 분석하여 학생 자신에게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며 개념과 일반화가 도출될 수 있는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해야 한다.(제주도교육청, 2002: 337) 고등학교 교실현장에서도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고에 입학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대학입시에 관심

이 많다보니 교사는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내 실업고인 경우도 모두가 대학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제주 시내 N고등학교의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N고등학교는 1학년인 경우, 일반학급 9개반, 특수학급 1개 반 총 10개 반이 있다. 1학년 사회과는 4명의 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다.(국사포함)

연구자 : 사회 수업시간에 수업방식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사회교사 : 강의식으로 하고 있다. 가끔은 문답법과 발표도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자 : 주로 강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은 탐구학습이나 토의학습이 사회과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회교사 : 교과서 자체가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강의와 문답법을 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의학습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면에서 강의식 수업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 학습목표에 따라 선생님이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사회교사 : 단원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교과내용을 잘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 :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수업시간을 늘리지는 않는지요?
사회교사 : 주당 3시간 가지고 방대한 양의 교과서를 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대신에 수행평가를 제주지역과 관련된 것을 하였습니다.
연구자 : 교과서를 다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교사 : 2학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환경 등 기본적인 지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의 면접내용을 분석하면 학습은 대학입시의 한 수단이 되며, 입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험에 대비해야하고 시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학교가 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시켜야 하므로 강의식·설명식 수업이 주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평가가 대학입시의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지식 위주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도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학생의 창의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N고등학교 1학년 2004학년도 1학기 3, 4월 사회수업의 실태를 1학년 학생 L군의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면접일자 2004년 4월 17일자)

16) 제주시내 한 실업고는 대학 입학률이 90%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의 교장은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면접일자 2004년 4월 13일자)

연구자 : 사회 수업시간에 학습의 형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학생 :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핵심내용을 설명해주시고, 탐구활동은 질문을 하여 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충하여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연구자 : 사회교과서 속에 제주도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학생 :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 : 최근에 제주도에 관해서 학습한 것 있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해주렴?
 학생 : 사회 수행평가가 자기 지역을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연구자 : 사회수업시간에 제주도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한 수업은 없었나요?
 학생 : 제주시 교통정보체계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N고등학교 1학년 2003학년도 평가문제를 분석해도 일반적이고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도록 지역성에 바탕을 둔 사회과 수업이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주 시내 N고교, O고교 1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모두가 주당 2시간으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이해시키기도 힘들다며, 유인물을 병행하면서 교과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전념한다고 했다. N고교 1학년은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4·3사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지만, 제주 지역사에 대하여 수업을 할 계획은 없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제주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교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충실히 이해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학습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험에 자유롭지 못한 중·고등학생들은 학습의 흡수자로서의 경향이 강하다. 초등학교는 지역교과서가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이 수업에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중·고등학교 현장은 시험이 목적이고 공부는 수단이며 시험 준비가 바로 '공부'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시험과 무관한 학습은 흥미를 잃게 되어 교사, 학생 모두 지역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 결 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지역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체제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제시 → 지역교육청의 실질적 구체화 → 학교의 창의적 현장화 → 교실에서의 적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화 수준은 학교현장에서 가시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사회과 교과서에 실린 제주지역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학교현장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이후부터 지역교육이 단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4학년 2학기부터 지역교육은 단절되고 있다. 특히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13-18세)인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역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인으로서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의 사회·문화, 역사, 지리적 특성을 바르게 교육하고 제주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선과 교육과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둘째, 학교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신성시되어 '지역교과서'가 없는 경우 지역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역교육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교과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를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조차 제주지역사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의 친숙한 사료를 이용할 때 제주지역과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주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인접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 공부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 명료하게 탐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일반화된 자료의 부족과 학생들의 관심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역이해교육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으로 제주지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제주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교는 학교내신이 절대적으로 고교입시에 영향을 주므로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은 입시를 위한 수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재량권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내 중학교들은 다른 학교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고등학교도 학교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학능력고사 과목이 아닌 교과목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입시에 매달리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잃고 있는 것이다. 성적과 시험에 의한 학생 선발은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완성교육(terminal education)으로 경쟁보다는 인격 완성과 공동체정신을 내면화시키는 일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시장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간형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이라는 사회과의 목표(교육부, 2000: 19)도 외면당하고 있다.

향후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든 지방이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2004년 4월 21세기 제주교육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제주교육의 도전과 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8가지 목표¹⁷⁾를 수립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며,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제주 자연환경의 오염, 개발에서 도민 소외의 문제, 그리고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른 지역정체성 상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화,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국가나 지역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각 지역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 그 지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민족문화 특히 지역문화교육을 통하여 민족혼과 애郷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라나는 제주도의 청소년들에게 제주의 사회문화 이해를 위한 지역교육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0학년까지 재량활동시간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역교육은 용이하다. 다음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 사회현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수업의 질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회에 맞게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제주의 교육·문화 콘텐츠의 개발도 시급하다.

17) 제주도교육청이 2004년 4월 30일 확정, 발표한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은 제주교육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서 제주교육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신나는 학교, 신명나는 교직사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교육의 정보화, 세계화, 제주 특성을 살리는 교육, 자율성 증진 교육행정, 쾌적한 교육환경 등 8가지 목표를 수립했다.(<http://www.jje.go.kr>)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사회과교육과정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9a),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2), 「사회 3 중학교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2003a), 「사회 3-1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b), 「사회 3-2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c), 「사회 4-1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d), 「사회 4-2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e), 「사회 5-1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f), 「사회 5-2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g), 「사회 6-1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h), 「사회 6-2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i), 「중학교 국사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j),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k), 「사회 3-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l), 「사회 3-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m), 「사회 4-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n), 「사회 4-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o), 「사회 5-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p), 「사회 5-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q), 「사회 6-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r), 「사회 6-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4),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서울: 지학사
-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박인현(2001), 「초등사회과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신행철 외(1997), 「제주사회론 1」, 서울:한울.
- 염미경(2000),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 정치-일본 미이라쿠의 역사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4집 가을호
- 이규호(1982), 「제3세계에 있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위한 투쟁」, 서울:문음사.
- 이승중(2004), 「고등학교 정치 교사용지도서」, 서울:(주)지학사
- 이승철(2002), 「초등사회과 교과서 삽화자료 분석」, 서울교대 석사논문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2002 장학자료, “아름다운 제주도” 4-1」.
-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향토사교육자료-교육지원자료’95-12”, 태명인쇄사
- 제주도교육청(2001a), 「제7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고등학교)」, 교육과정 장학자료.
- 제주도교육청(2001b), 「제7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중학교)」, 교육과정 장학자료.
- 제주도교육청(200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고등학교)」, 교육과정 장학자료.
- 제주도교육청(2003), 「사회과 탐구자료, “아름다운 제주도” 4-1」
- 제주도제주시교육청(2003a), 「사회과 탐구자료, ‘발전하는 제주도’ 3-1」
- 제주도제주시교육청(2003b), 「사회과 탐구자료, ‘발전하는 제주도’ 3-2」
- 조광준(1998), 「인간 형성의 사회과 교육」, 서울:집문당
- 조화룡 외(2003a), 「제7차, 사회 1 중학교 교과서」, 서울:(주)금성출판사
- 조화룡 외(2003b), 「제7차, 사회 1 중학교 교사용지도서」, 서울:(주)금성출판사
- 조화룡 외(2003c), 「제7차, 사회 2 중학교 교과서」, 서울:(주)금성출판사
- 조화룡 외(2003d), 「제7차, 사회 2 중학교 교사용지도서」, 서울:(주)금성출판사
- 조화룡 외(2003e), 「제7차, 사회 3 중학교 교과서」, 서울:(주)금성출판사
- 조화룡 외(2003f), 「제7차, 사회 3 중학교 교사용지도서」, 서울:(주)금성출판사
- 진영은, 조인진(2001), 「교과교육의 이해」, 서울:학지사.
- 차경수(2002), 「현대의 사회과 교육」, 서울:학문사
- 황재기 외(2003a), 「제7차, 사회 1 중학교 교과서」, 서울:(주)교학사.
- 황재기 외(2003b), 「제7차, 사회 1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주)교학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교육과정 정보서비스 <http://www.kncis.or.kr>
-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 제주도교육청 <http://www.jje.go.kr>
- 제주도북제주군교육청 <http://www.buk-e.go.kr>
- 제주도제주시교육청 <http://www.jjse.go.kr>
- 제주도서귀포시교육청 <http://www.jjsgpe.go.kr>